

JUS.T. 해(NEW)

심원_심화원

고급이 공학



방초(芳草)를 밟아 보며 난초 영지도 뜯어보자
 배 세워라 배 세워라
 일엽편주(一葉片舟)*에 실은 것이 무엇인가
 지국충(至菊兇) 지국충(至菊兇) 어사와(於思臥)
 ㉠ 갈 때는 안개뿐이요 올 때는 달이로다

〈춘(春) 7〉

곳은 비 밋어 가고 시냇물이 맑아 온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 낚대를 둘러메니 깊은 흥을 못 참겠다
 지국충(至菊兇) 지국충(至菊兇) 어사와(於思臥)
 ㉢ 연강첩장(煙江疊嶂)*은 누라서 그려낸고

〈하(夏) 1〉

옷 위에 서리 오되 추운 줄을 모르겠다
 닳 내려라 닳 내려라
 ㉣ 조선(釣船)*이 좁다 하나 부세(浮世)*와 어떠한가
 지국충(至菊兇) 지국충(至菊兇) 어사와(於思臥)
 ㉤ 내일도 이리하고 모레도 이리하자

〈추(秋) 9〉

물가의 외로운 술 혼자 어찌 씹씩하고
 배 매어라 배 매어라
 [A] 험한 구름 한(恨)치 마라 세상을 가리온다
 지국충(至菊兇) 지국충(至菊兇) 어사와(於思臥)
 파랑성(波浪聲)* 염(厭)치* 마라 진환(塵喧)*을 막는도다
 〈동(冬) 8〉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詩)」-

- * 일엽편주 : 한 척의 작은 배.
- * 연강첩장 : 안개 긴 강과 겹겹이 쌓인 산봉우리.
- * 조선 : 낚싯배.
- * 부세 : 헛되고 덧없는 세상.
- * 파랑성 : 물결 소리.
- * 염치 : 싫어하지.
- * 진환 : 속세의 시끄러움.

[A]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강호 한 꿈을 꾸지도 오래러니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 할샤
 홀륭한 군자들이 낚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 청풍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 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라
 다들 이 없을 건 다만 이젠가 여기노라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① 〈보기〉는 [A]와 달리 현실 개혁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는 〈보기〉와 달리 현재의 삶에 순응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③ [A]의 '구름'은 〈보기〉의 '명월'과 달리 부정적 현실을 차단하는 자연물로 기능하고 있다.
- ④ [A]는 '물가'와 '세상'의 대비를 통해, 〈보기〉는 '강호'와 '풍월 강산'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A]와 〈보기〉 모두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01

[A]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강호 한 꿈을 꾸 지도 오래려니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 할사
홀룡한 군자들이 님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 청풍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 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한 백구(白駒)야 오라 하며 말라 하라
다들 이 없을 건 다만 이진이 여기노라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① <보기>는 [A]와 달리 현실 개혁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는 <보기>와 달리 현재의 삶에 순응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③ [A]의 '구름'은 <보기>의 '명월'과 달리 부정적 현실을 차단하는 자연물로 기능하고 있다.
- ④ [A]는 '물가'와 '세상'의 대비를 통해, <보기>는 '강호'와 '풍월 강산'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A]와 <보기> 모두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JUS.T'S 通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자. 또한 <어부사시사>와 <누항사>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이미 여러 번 기출이 됐어. 현대어 풀이가 능숙히 되게 공부를 해도

록 해.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와 박인로의 <누항사>에서 화자는 모두 자연에 은거하고 있는 양반이야. 그게 공통점이야. 차이점은 <어부사시사>의 화자는 자연에서 흥취를 즐기며 속세를 잊고 싶어 한다는 점이고, <누항사>의 화자는 자연에서 흥취를 즐기며는 '입과 배가 누가되어', 즉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거야.

박인로는 무인으로서 임진왜란에도 참전했던 훌륭한 분이셨지만 은퇴 후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 같아. 자연에 은거하며 일반 양반들처럼 살고 싶었지만 그러기가 어려웠어. 그때의 심정이 잘 담긴 작품이 <누항사>야. 윤선도의 <어부사시사>가 일반적인 양반들의 강호한정가의 성격을 담고 있는 전형적인 작품이라면 <누항사>는 몰락한 양반의 모습을 보여 주는 조선 중·후기의 작품(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양반 문학의 성격을 모두 보여주는 과도기적 작품)으로서 둘의 성격을 비교·대조해서 묻는 것은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는 것 알아두자.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 상관없이 이 내용을 꼭 알아두고 넘어갔으면 해.

- 역사 덕후를 위한 -

'시조'를 잘 지었다는 윤선도는
어떤 사람일까?

당시 금서였던 『소학』을 보고 감명을 받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18세에 진사초시에 합격하고, 20세에 승보시(성균관 유생에게 시행하던 시험)에 1등을 했으며 향시와 진사시에 연이어 합격했다.

1616년(광해군 8) 성균관 유생으로서 이이첨·박승중·유희분 등을 격렬하게 규탄하는 「병진소」를 올렸다. 이로 인해 이이첨 일파의 모함을 받아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됐다. 그곳에서 「견효요」 5수와 「우후요」 1수 등 시조 6수를 지었다.

1년 뒤인 1617년(광해군 9) 경상남도 기장으로 유배지를 옮겼다가, 1623년 인조반정으로 이이첨 일파가 처형된 뒤 풀려나 의금부도사로 제수됐으나 3개월 만에 사직하고 해남(고향)으로 내려갔다. 그 뒤 칼방 등에 임명됐으나 모두 사양했다.

1628년(인조 6) 별시문과 초시에 장원으로 합격해 불림대군·인평대군의 스승이 됐다. 그 당시 법률로 왕의 사부는 관직을 겸할 수 없음에도 특명으로 공조좌랑·형조정랑·한성부서윤 등을 5년간 역임했다. 1633년(인조 1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예조정랑·사헌부지평 등을 지냈다. 그러나 1634년(인조 12) 강석기의 모함으로 성산의 현감으로 좌천된 뒤, 이듬해 파직됐다.

그 뒤 해남에서 병자호란으로 왕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산이 깊고 물이 맑아 아름다운 섬인 보길도에 은거하였다. 정착한 그 일대를 '부용동'이라 이름하고 격자봉 아래 집을 지어 낙서재라 했다. 그는 조상이 물려준 막대한 재산으로 십이정각·세연정·회수당·석실 등을 지어 놓고 마음껏 풍류를 즐겼다.

난이 평정된 뒤 서울에 돌아와서도 왕에게 인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죄로 1638년(인조 16) 다시 경상북도 영덕으로 귀양갔다가 이듬해에 풀려났다.

이로부터 10년 동안 정치와는 관계없이 보길도의 부용동과 새로 발견한 금쇄동의 자연 속에서 한가한 생활을 즐겼다. 이때 금쇄동을 배경으로 「산중산곡」, 「산중속산곡」, 「고금명」, 「증반금」 등을 지었다. 그 뒤 1651년(효종 2)에는 정신적 안정 속에서 보길도를 배경으로 「어부사시사」를 지었다.

다음 해 효종(孝宗)의 부름을 받아 여조참의가 됐으나 서인의 모략으로 사직하고 경기도 양주의 고산에 은거했다. 마지막 작품인 「몽원요」는 이곳에서 지은 것이다.

1657년(효종 8) 기세에 다시 벼슬길에 올라 동부승지에 이르렀으나 송시열과 맞서다 관직에서 쫓겨났다. 이 무렵 「시무팔조소」와 「논원두표소」를 올려 왕권의 확립을 강력히 주장했다. 1659년 효종이 죽자 여론 문제로 서인과 맞서다가 삼수에 유배됐다. 1667년(현종 8) 풀려나 부용동에서 살다가 그곳 낙서재에서 85세로 죽었다.

정치적으로 열세에 있던 남인의 가문에 태어나 집권 세력인 서인에 강력하게 맞서 왕권 강화를 주장하다가, 20여 년의 유배 생활과 19년의 은거 생활을 했다. 그러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화려한 은거 생활을 누릴 수 있었고, 그의 탁월한 문학적 역량은 이러한 생활 속에서 표출됐다. 자연을 문학의 제재로 채택한 시조 작가 가운데 가장 탁월한 역량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작품 속에서 자연과 직접적인 대결을 보인다는 생활 현장으로서의 생동하는 자연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그가 자연이 주는 시련이나 고통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조상이 물려준 유산을 토대로 풍족한 삶을 누렸기 때문이다. 정철·박인로와 함께 조선시대 3대 시인으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가사(歌辭)는 없고 단가와 시조만 75수나 창작한 점이 특이하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